



뷰티 분야
출사표 내는
식품업체들
니



Life

CJ올리브영
라이브방송 전용
스튜디오 공개
L2



DDP 지붕 걸으며 도심 구경을 “이색체험 ‘루프탑 투어’ 즐겨요”

서울시, 내달 17일까지 시범운영
지붕 일부 총 280m 30여분간 투어
내년부터 코스 확대해 정식운영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지붕 위를 걸으며 도심 모습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DDP 루프탑 투어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루프탑 투어는 비정형 알루미늄 패널과 사막식물 ‘세덤’으로 이뤄진 숨겨진 공간 ‘지붕’을 만나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DDP 지붕 일부 총 280m를 30여분간 직접 걷고 즐길 수 있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코스를 확대해 봄(5월)과 가을(9~10월)에 루프탑 투어를 DDP 정식 콘텐츠로 운영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기간 중 매주 금~일요일, 오후 1시 30분과 3시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DDP 루프탑 투어’에서 DDP 루프탑을 걷고 있다. /뉴시스

30분에 하루 두 번 운영된다. 만 18~70세 성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1회당 투어 인원은 안전을 고려해 10명으로 한정했다. 투어 시 기념수건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안전 그네, 안전모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DDP 루프탑 투어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외국인 포함)은 이달 24일 오전 10시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전 장비 착용

후 DDP 지붕 위를 걷는 프로그램 특성상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참가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DDP 루프탑 투어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시의 또다른 매력 콘텐츠”라며 “DDP의 지붕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모습이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여유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독일서 유럽 한국어교원 연수

유럽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서울시교육청은 주프랑스한국교육원 및 주독일한국교육과 함께 오늘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권 한국어채택교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시범교육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연수는 유럽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 대상은 K-Pop 및 K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은

유럽 10개국의 각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원 38명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수법, 에듀테크 활용 교육 등으로 유럽 내 한국어 교육여건을 고려해 현지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한국어교수법 시간에는 서울시교육청 다+온센터 한빛마중교실에서 중도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를 초청해 수준별 한국어교육법 등 외국인 눈높이 맞춤형 교수 방법으로 실습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

교육공무원 성비위 징계 최근 5년간 663건

학생 우려에 징계 더욱 강력해져야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합산

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문 의원은 “최근 답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무단 방치’ 공유자전거 민원, 1년 새 2.5배 ↑

권익위, 민원분석 시스템 분석 결과
올해 9월, 공유자전거 민원 580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23일 권익위가 최근 3년간 민원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올해 9월 기준 580건으로, 전년 동월(233건) 대비 2.5배(347건) 증가했다.

올해 월 평균 민원 건수는 197건으로, 전년(323건)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었다.

민원인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사거리에서 누워 있는 공유자전거 때문에 인도가 좁아 급히 피하다가 그늘막 파사일에 자전거 운전대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유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주

차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해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AI·휴머노믹스 기술로 미래사회 논의한다

오늘 ‘경기도글로벌대전환포럼’ 개막

인공지능(AI)과 휴머노믹스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세계적 석학과 논의하는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이 오늘부터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유명인사를 초청,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의제를 다루게 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와 휴머노믹

스(AI and Humanomics)’로, 인공지능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는 민선8기 경기도의 정치철학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시, ‘맨발 산책로’ 가이드라인 마련

동선분리 철저, 환경오염 최소화 등

서울시는 쾌적한 산책로 유지를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철저한 동선 분리를 통한 이용자 마찰 최소화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안전

사고 최소화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맨발 산책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는 기존에 맨발길로 이용돼 온 자연 지반을 우선 정비하되, 사용자 분리를 위해 일반 산책로와 맨발 산책로는 이용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9 | 해질 / 17:43

10월 24일 (木)
음력 : 9월 22일

수도권 날씨
7~1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5/19, 동두천 5/19, 가평 4/19, 파주 3/19, 서울 7/19, 양평 6/19, 인천 9/19, 수원 8/19, 용인 8/19, 평택 6/19, 백령도 13/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범호 KIA 감독 “상황에 맞춰 최선 다할 것” /사진 뉴시스
▲KIA·삼성빼고 집합…류중일호, 24일부터 ‘프리미어 12’ 준비 돌입

▲서재응 전 KIA 투수코치, 이호준 감독 손 잡고 NC行…수석코치로 합류
▲북한 축구 국가대표 팀, 공항서 ‘겁라면 끼니’ 포착…힘겨운 월드컵 일정 수행



▲엔리케 생제르맹 감독, 이강인에 신뢰 표명…“내 팀 경기력에 만족” /사진 뉴시스
▲남자 배구 삼성화재 그로즈다노프, ‘화려한 데뷔전’…KB손보 3-1로 제압